

도서지역 신규여객선 건조 '일석이조'

군산시, 해상교통 개선 접근성 높여 '주민 삶의 질 ↑ · 관광 활성화 효과' 어청도 250톤급 고속차도선 대체 건조 투입 · 비안도 뱃길 올 하반기 개통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투입과 신규 도선운항을 통한 해상교통 개선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내 최서단에 위치한 어청도 노후여객선을 고속차도선 교체로 일일생활권을 보장 보장하여 도서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영해기점 도서인 어청도는 어청도 등대, 한반도 지형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1일 1회 운항 및 결항을 증가 등 접근성이 불리해 도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관광객 방문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군산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250톤급 고속차도선 대체 건조를 위해 국가 예산(60억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어촌관광자원화 공모사업인 '어청도 이야기 길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어청도 한반도 지형과 등대, 차등포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속선 투입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어청도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유일하게 뱃길이 끊겨 불모지로 전락한 비안도에 도선운항을 위한 오랜 갈등이 해결되어 가깝지만 멀었던 섬 비안도(두리도)의 뱃길이 올 하반기에는 개통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비안도 도선의 효율적인 도선 건조를 위해 비안도 현지에서 주

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도선건조위원회 개최하여 선내구조 및 기관 등을 결정하여 도선(약11톤급, 500마력)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선박 건조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비안도 도선사업단' 법인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도선 건조 및 도선면허 취득을 완료하고 급전 하반기에 시범 운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새로운 뱃길이 열려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활기찬 어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중국 장수성 양저우시에서 새만금문화학당 개강식이 열렸다.

긴밀 교류협력 '한 뜻'

군산 우호도시 중 장인·양저우서 '새만금문화학당' 개강

군산시의 국제우호도시 관계를 체계화 인문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는 중국 장수(江蘇)성 장인(江陰)시와 양저우(揚州)시에서 2019 새만금문화학당 개강식이 열렸다. 장수성 장인·양저우 개강식에 앞서 지난 4월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에서 문화학당을 개강하여 수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저장(浙江)성 푸양(富陽)구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새만금문화학당이 개강될 예정이다. 군산시의 국제문화사업인 새만금문화학당은 2019년에도 어김없이 중국 대륙의 자매우호도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과 군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장수성 장인, 양저우에서 진행된 군산 새만금문화학당 개강식은 군산시 김봉근 기획예산과장과 중국 칭다오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군산과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장해나갈 수강생들을 축하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문화학당을 개강할 수 있게 협조해 준 우호도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장수성 장인시와는 올해가 결연 10주년인 해로 오는 하반기 중국 장인시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 중이다. 두 도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층 발전되고 실질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번 개강식을 통해 긴밀한 교류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김봉근 기획예산과장은 "한중경협단지가 조성중인 새만금과 세계최장 새만금방조제, 그리고 63개의 유무인도가 한데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 군산에서 군산의 친선대사로 성장할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격려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범죄없는 안전도시환경 조성 경찰-의회 '하나로'

'지역공동체 치안 강화' ... 익산경찰서-익산시의회 치안설명회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지난 20일 익산시의회를 찾아 지역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제 217회 1차 정례회 개원에 맞춰 익산시의회 4층 분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치안설명회는 박헌수 경찰서장과 조규대 시의회 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설명회는 익산경찰서장이 직접 경찰서 치안상황과 주요 추진업무 등에 대해 설명을 실시해 시민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확충방안과 외국인 범죄등 각종 범죄예방 위한 CCTV 확충 등 시설개선을 통한 인프라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시민원들로부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익산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대 시의회 의장은 "평소 시민의회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기반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

며 이번 치안설명회가 각종 사고와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익산경찰과 익산시의회가 뜻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헌수 경찰서장은 "경찰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우리 익산경찰도 시민이 부르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달려가 업무를 처리 함으로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익산경찰의 목표이며 익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치안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장원천 기자

지역경제 홍보 서포터즈 발대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가 SNS 시민 서포터즈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시책을 홍보한다. 시에 따르면 21일 군산지역경제 관련 시책 홍보를 담당할 '제1기 군산사랑 SNS 시민서포터즈' 위촉을 겸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와 '군산사랑 홍보달인되기'라는 주제로 강경호 소셜마케팅 연구소 대표 SNS 홍보기법 교육이 진행됐다. 각계계층 22명으로 구성된 군산사랑 SNS 시민서포터즈는 올해말까지 8개월간 SNS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홍보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참여로 시민과의 소통에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상품과 지역업체 홍보, 골목상권(전통시장) 애용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중점적으로 취재하고 서포터즈 개인 블로그와 SNS에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이슈를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암 검진·암 환자 의료비 지원

7월부터 폐암검진 확대

익산시보건소(소장 한명란)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2018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직장가입자 9만3000원, 지역가입자 9만4000원 이하)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희망하는 검진

지정 의료기관이나 출장 검진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폐암 검진이 새롭게 추가되어 검진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진단받은 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 암 및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 120만원한도, 비급여는 100만원한도 내에서 지

원된다.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소아암환자는 백혈병인 경우 연간 3000만원한도, 기타 암종은 연간 20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검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원천 기자

익산시, 도시공원 조성 행정절차 본격화... 오늘 민관협의회

익산시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수립 중

인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올 연말부터 토지매입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마동, 수도산, 모인공원에 대한 민관협의회가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나머지 공원은 조성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 /익산=장원천 기자

익산 8개학교 명상숲 조성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상숲을 확대 조성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함라초등학교 등 4곳에 추진한 명상숲 조성에 이어 올해도 이리북중, 이리북초, 남성중, 여산중학교 등 4곳에 명상숲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해 학교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추가로 명상숲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했으며 꼭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중이다"며 "부족한 녹지공간을 학교에 조성해 학생과 주민에게 이로운 숲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원천 기자

군산 구도심 일원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

장미동 뽕뽕·가구거리 3억8200만원, 우체통거리에 3억9000만원


군산시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일원인 구도심 지역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21일 국토교통부 2019년도 상반기 공모사업에 뽕뽕·가구거리와 우체통거리 2곳을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4억6300만원, 시비 3억9000만원을 포함 7억7200만원 이고 월명동/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사각지대인 장미동 뽕뽕/가구거리에 3억8200만원과 우체통거리에 3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민주도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장미동 뽕뽕/가구거리는 민원의 행복이라는 도시재생 릴레이 주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경관정리를 체계하고 거리 경관개선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오시오' 재미있는 거리를 조성해 맛과 볼거리가 풍성한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우체통거리는 작년에 선정됐지만 월명동 도시재생선도 사업 완료 후에 재신청하는 것으로 조정돼 금년에 재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는 1년 365일 축제와 우체통거리 홍보관(교육, 기념품 판매)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